

간도지역의 홍범도 서사담 연구*

강현모(한남대)

〈목 차〉

- | | |
|--------------------|---------------------|
| 1. 서론 | 3. 서사담에 구현된 홍범도의 능력 |
| 2. 서사담의 전승 방식 | 1) 세심한 관찰 능력 |
| 1) 민속적 내용의 수용과 변용 | 2) 탁월한 용병술 |
| 2) 국내의 사건의 전이적 수용 | 3) 애민정신 |
| 3) 간도지역의 자생적 내용 생성 | 4. 결론 |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산포수 출신의 독립군 대장 홍범도가 활발하게 활동하였던 중국 간도지역에서 전승하는 홍범도 서사담의 전승양상과 의미를 밝히는데 있다. 이 연구는 중앙아시아 고려인에게 전승되는 홍범도 서사담 연구의 후속 작업으로, 원래 간도지역과 연해주 지역의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앞의 목적을 검토하는 작업이었다. 하지만 두 지역에서 현지조사 자료가 미비하였고,¹⁾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A2A01016692)

연해주 지역의 자료들은 중앙아시아 고려인 전승 자료와 유사한 것이 많았다. 그러던 차에 현지조사 기간에 만난 간도의 제보자가 가지고 있던 자료를 뒤에 확보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홍범도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이전까지 냉전 체제하에서 관서지역의 주요 의병으로 다룬 연구가 있을 뿐이다.²⁾ 1980년대 이후에 연변과 소련 등과의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그곳의 연구 성과가 소개되어 홍범도에 대한 연구가 종전보다 훨씬 좋은 여건이 조성되었다. 그럼에도 연구들은 각 지역에서 고립 분산적으로 진행되었고, 자료의 부족, 이데올로기적 제약, 연구자들의 현재 입장과 사관(史觀)의 차이 등 많은 제약과 문제점 때문에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국내의 역사학에서는 청산리 전투에서 홍범도 부대의 비중과 활약에 대한 것, 국내의병 투쟁과 개인 활동에 대한 연구, 소련 자료가 공개되면서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되었다. 특히 재소교포 작가 김세일의 소설 『홍범도』가 1989년 국내에서 출간되면서, 『홍범도 일지』 필사본이 부록으로 실리며 대중적 관심과 함께 홍범도 부대 활동에 대해 재검토가 이뤄지게 되었다. 최근에는 홍범도 일지 판본 및 전기에 대한 문학적 연구 성과가 있었지만, 홍범도의 구비설화(일

-
- 1) 강진구, 「구소련권 고려인 문학에 나타난 역사복원욕망 연구-김세일의 장편소설 『홍범도』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25, 2004, p.311. 강재언, 「북간도의 항일 유적지를 찾아서」, 『사회와 사상』 11호, 1988. 강용권, 「홍범도 연구」, 『국학연구』 3, 국학연구소, 1990. 이들은 간도에서 홍범도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전승되고 채록된다고 하였으나, 현지조사에서 설화를 거의 조사할 수가 없었다. 제보자를 만날 수 없었고, 문화대혁명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서사담이라 한 것은 현지 조사된 이야기가 구비문학의 설화로 보기도 어렵고, 현실담으로만 보기도 어렵다. 그래서 설화와 현실담을 포괄할 수 있는 서사담이란 명칭을 사용하였다.
 - 2) 한말 의병을 개괄적으로 다룬 연구에서 후기 주요 의병부대로 다루고 있다. 예를 들면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독립운동사 제1권: 의병항쟁사』(1970)에서도 홍범도를 근대 해산 이후 대표적인 의병장으로 다루고 있지만, 주로 전과 위주의 결과만 기록하고 있다. 『독립운동사 제1권: 의병항쟁사』 원호처, 1970; 『민족전란사(1) - 의병항쟁사』 28권, 국방부, 1984.

화)가 전승되고 있음에도 구비 서사담에 대한 언급이 거의 되지 않았다.³⁾

홍범도는 북한의 평양에서 탄생하였고, 활동 지역이 북한(함경도, 황해도)과 만주와 연해주 일대이다. 우선 조사해야 할 연해주와 만주 지역은 활동지역이 광범위하여 그 조사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홍범도가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며 일본과 싸웠던 북한에서의 초기 의병활동은 현재로서 조사가 불가능하다. 다만 간도지역에서 홍범도의 40-50대 시절의 삶의 현장을 중심으로 조사할 수 있을 뿐이다.⁴⁾ 한편 간도지역은 조선족들이 집거하면서 집단적으로 이주한 적이 없어 홍범도의 활동담을 비롯한 서사담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런데 간도지역에는 가짜 홍범도 서사담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지조사에서는 홍범도 서사담의 자료 출처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방식을 고려하며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구체적인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이곳의 전승공간은 중앙아시아 고려인들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홍범도 서사담의 현지 조사한 분량은 한정되어 있고, 조사 내용도 설화적 내용보다는 역사적 사건 서술이 주 내용이다.⁵⁾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지조사 자료보다 현지조사 때 만난 리룡득이 조사한 기존의 자료⁶⁾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3) 강현모,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홍범도 서사담 연구』, 『민속연구』 36, 안동대학교 민속학 연구소, 2018.2, pp.107-108. 홍범도에 관한 연구사의 내용을 언급하였다.

4) 이 지역은 홍범도가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전까지 생활하고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던 간도지역과 준비하였던 연해주지역이 있다. 전승되는 홍범도 서사담의 내용은 많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즉 간도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공간이라면, 연해주는 한계를 갖거나 새로운 활동을 위해 준비하였던 공간이다. 간도지역에서의 홍범도 서사담은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활약상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왜냐하면 홍범도는 일제와의 싸움에서 거의 패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5) 간도지역에서 현지 조사한 홍범도 서사담의 자료는 19편이지만, 단편적이고 리룡득의 책이 실려 있는 자료도 3편이 있다. 현지조사 자료의 내용도 홍범도의 탁월한 능력을 드러내고 있으나, 편수가 적고 부분적이다. 그리고 일부의 자료는 역사적 내용을 서술한 것도 있다.

6) 리룡득, 『민족영웅의 설화와 민요』, 역락, 2016.5.

II. 서사담의 전승 방식

리룡득의 『민족영웅의 설화와 민요』에 실려 있는 홍범도의 자료는 69편이다.⁷⁾ 이 자료들은 홍범도와 직접 관련된 자료들과 홍범도의 부하들이 행한 자료로 나누어진다. 이들 홍범도 서사담의 전승방식을 보면, 전통적인 민담과 민속을 수용하여 홍범도 서사담을 담아내고 있는 자료가 20편이 있고, 국내에서 행하였던 내용이나 사건을 간도지역에서 행한 일화로 전이시킨 자료가 19편이 있다. 그 밖의 자료들은 간도지역에서 홍범도나 병사들이 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현지의 자생적인 내용을 꾸며 전승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1) 민속적 내용의 수용과 변용

이 방식은 전통적인 민담과 민속의 내용을 수용과 변용하여 홍범도나 부하들이 행하였던 사건으로 전승시킨 자료들을 말한다. 홍범도의 사건으로 전승되고 있으나, 그 사건의 전개방식이나 내용은 전승되어온 민담이나 민속의 내용이나 방식을 수용하고 변용하여 전승하고 있다.

우선 민담의 내용을 홍범도 서사담에 전이하여 수용하였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간 애매한 사건을 해명」, 「약수샘 이야기」, 「부자놈을 골탕 먹이다」, 「하늘도 구국군을 도와」 등이 있다.⁸⁾ 「시아버지와 며느리간 애매한 사건을

7) 리룡득의 위의 책 자료 중에 홍범도와 관련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자료를 홍범도에 결부되어 전승되는 자료가 4편이 있다. 2편은 1930년 이후에 홍범도의 일화로 전하고 있으나 그 당시는 홍범도가 간도지역에서 활동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는 안중근 의사의 활동을 홍범도에게 결부되었으며, 다른 하나는 홍범도 부대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나, 행위 자체는 홍범도나 홍범도 부대에 관련되지 않았다.

8) 첫째는 p.85, 둘째는 p.75, 셋째는 p.115, 넷째는 p.72. 앞의 첫째, 둘째는 자료의 배열된 순서이고, 뒤의 숫자는 리룡득의 책에 있는 자료의 시작 페이지이다. 앞으로 이 책의 자료는 이와 같이 방식으로 각주를 제시하겠다.

해명」은 박문수 어사의 「목화동냥」의 중심 부분을 차용하고 있는데, 홍범도는 박문수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의 능력을 드러낸다. 그리고 「약수샘 이야기」는 가뭄으로 죽을 물고기를 살려주니 용녀가 되어 묘자리를 얻게 되었다는 보은담을 수용하여 약수샘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자눔을 골탕 먹이다」는 사기담의 내용을 수용하여, 인색한 부자눔 집의 잔치에 가서 금이 들은 지팡이를 잃었다며 그 값을 받아갔다는 내용이다. 「하늘도 구국군을 도와」는 멀리 출타한 아들이나 남편이 절간에서 비를 피하고 있을 때 무당으로 도움으로 그 아들이나 남편의 이름을 불러서 살았다는 내용을 차용하여, 홍범도의 의병이 어머니를 무사히 대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민담의 내용과 형식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설화의 내용과 방식을 변용한 것으로, 「부임 족족 병신이 된 령사 놈들」, 「노래하는 바위」, 「마당땀 인삼을 얻은 이야기」, 「하산요토월(山腰吐月)이라 불가지상(不吉之相)이로다」, 「계관산툰의 유래」 등이 있다.⁹⁾ 「부임 족족 병신이 된 령사 놈들」은 「아량의 전설」이란 설화의 방식을 변용하여 영사가 부임하는 대로 병신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전개하고, 「노래하는 바위」는 유방과 항우의 싸움에 관한 민담이나 고사의 내용을 변용하여, 홍범도의 병사들이 싸움하는 도중에 하모니카의 반주로 노래를 불러서 일본군들에게 싸울 의지를 잃게 한다. 「마당땀 인삼을 얻은 이야기」는 노인(신선)의 부탁으로 초모자를 사다가 주었더니, 그것의 보은으로 인삼을 얻어 군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이다. 「하산요토월(山腰吐月)이라 불가지상(不吉之相)이로다」도 박문수 어사의 일화로 박 어사를 죽이려고 하였던 여인의 복수담의 형식을 차용하여, 명월구 일본경찰서를 습격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였고, 「계관산툰의 유래」는 기진한 스님에게 젓을 주고 묘자리를 얻었다는 설화의 방식을 변용하여, 홍범도 의병대의 기진한 연락병에게 남은 한 마리 씨암탉을 잡아주고 마을 이름을 얻었다는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다.

9) 첫째는 p.69, 둘째는 p.119, 셋째는 p.79, 넷째는 p.90, 다섯째는 p.110.

다음으로 민속적인 내용을 수용한 전승 자료들이 있다. 「저는 홍범도 수하에 있는 군인이올시다」, 「대지주 리완장을 혼뜨검 내다」, 「불효자 저놈을 매우 쳐라」, 「한 총각 의병대의 이야기」 등이다.¹⁰⁾ 「저는 홍범도 수하에 있는 군인이 올시다」는 혼인잔치 상에 놓인 닭을 매가 채가는 것을 본 홍범도의 군사가 매를 죽이고 닭을 찾아와 놓았다는 것이고, 「대지주 리완장을 혼뜨검 내다」는 대지주 리완장의 땅에 무덤을 썼는데, 묘를 파낼 뿐만 아니라 그곳에 엽전으로 채우라고 한 것을 홍범도가 찾아가 묘를 파내지 못하게 한다. 불효자를 혼낸 「불효자 저놈을 매우 쳐라」는 고려장이란 민속적인 내용을 차용하여 부모에게 효도하고 잘 모시고 살게 한다. 「한 총각 의병대의 이야기」는 여인의 알몸을 보고 일어난 상사의 욕정을 채운 병사의 일화를 듣고, 그 병사에게 여인을 찾아가 꿈의 이야기로 용서를 구하라는 내용이다.

한편 의료와 관련된 자료들로는 「벌에게 쏘인 로인의 병을 치료한 이야기」, 「목침 두 개로 오금이 들어붙은 병을 치료」 등이 있다.¹¹⁾ 「벌에게 쏘인 로인의 병을 치료한 이야기」는 벌에 쏘인 노인에게 이끼를 붙여 치료한 이야기이다. 이는 홍범도가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명의 화타의 일화를 차용하여 홍범도 서사담에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목침 두 개로 오금이 들어붙은 병을 치료」는 홍범도가 오금이 들어붙은 환자를 목침으로 때려 치료한 것으로 민간요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밖에 민속적 내용을 수용한 자료들로 「방구에 놀라 내뛰다가 뒤어진 토벌 대놈들」, 「신을 거꾸로 신겨 왜놈들을 미혹시키다」 등이 있다.¹²⁾ 「방구에 놀라 내뛰다가 뒤어진 토벌대놈들」은 「며느리 방구소동」 이야기를 변형하여 일본 토벌대놈의 침탈 행위를 처단한 내용이고, 「신을 거꾸로 신겨 왜놈들을 미혹시키다」는 장수설화에서 장수가 물을 건너 도망할 때의 내용을 현대적으로 변형하여 수용하였다. 이 내용은 중앙아시아 고려인에게 널리 알려진 홍범도가 도망할

10) 첫째는 p.71, 둘째는 p.137, 셋째는 p.100, 넷째는 p.42.

11) 첫째는 p.52, 둘째는 p.54.

12) 첫째는 p.34, 둘째는 p.95.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설화와 유사한데,¹³⁾ 이곳의 내용은 현실적으로 변형된 토착지역의 자생적인 이야기로 전승되고 있다.

이상에서 민속적 내용의 수용과 변용에서는 민담의 내용과 형식을 전적으로 수용하기, 설화의 내용과 방식을 변용하기, 민속적인 내용이나 민간요법을 수용하기 등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민담과 민속들을 수용하고 변용하면서 홍범도 서사담을 전승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국내의 사건의 전이적 수용

이 방식의 전승은 구체적인 대비 자료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렇지만 홍범도가 산포수 출신이란 점과 국내에서 오랫동안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홍범도의 중국에서의 의병활동은 1920년 6월 봉오동 전투에서 10월말의 청산리 전투까지 약 5개월 정도로 추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냥, 밀정이나 첩자, 친일 일진회 회원에 관련된 자료는 국내의 사건이 간도지역의 사건으로 전이한 것으로 보인다.

홍범도 서사담으로 전이된 것을 보면, 우선 「내두산촌 사람들의 이야기」, 「마곡성툰」, 「삶은 소 옷다 꾸레미 터질 일」, 「왜놈을 죽쳐 총 두 자루를」 등이 있다.¹⁴⁾ 「내두산촌 사람들의 이야기」와 「마곡성툰」은 1930년대 이후로 발생한 사건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때는 홍범도 의병대의 활동이 간도에서 사라진 이후이다. 홍범도 의병대는 1920년 말에 북간도의 밀산을 통해 러시아로 갔다가 1921년 6월 자유시 참변을 겪은 후에 러시아 적군에 편입되었다가 나중에 해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들은 다른 의병대의 활동이 홍범도 의병대의 사건으로 전이되었다고 하겠다. 「삶은 소 옷다 꾸레미 터질 일」은

13)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은 이 부분을 홍범도가 게릴라전을 하면서 일본군을 치고 빠지는 방법으로 보았다. 그들을 홍범도가 '나뭇잎을 타고 물을 건너갔다' 하거나 '나무를 타고 뛰어내려 일본군에게 잡히지 않았다'고 한다.

14) 첫째는 p.47, 둘째는 p.144, 셋째는 p.26, 넷째는 p.48.

안중근이 이등박문을 죽였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 홍범도의 일화로 잘못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왜놈을 죽쳐 총 두 자루를」은 홍범도 의병대와 상관없이 진행된 사건으로, 언은 총을 나중에 홍범도 의병대에 전달하였다는 점에서 홍범도 일화로 수용하였다.

다음으로 일본의 밀정이나 친일주구들을 처단하는 자료이다. 홍범도는 함경도에서 의병활동을 하며 일본군과 일제의 앞잡이이었던 일진회 회원들을 처벌한 사건들이 많다. 그리고 홍범도는 일본군과의 대결에서 거의 패배한 적이 없었다. 이런 점에서 국내의 사건이 이곳 간도에서의 사건으로 전이된 것으로 보인다. 즉 「왜놈 밀정을 처단」, 「홍범도 장군이 왔다!」, 「기묘한 술수로 두 악질주구를 처단」, 「괜히 서들다간 큰코 다치겠어」, 「아이고 끝내 목숨 떼이게 됐구나」, 「일제의 독살음모를 분쇄」, 「석탄령에서 원수를 갚아주다」, 「웃시, 우리 황군의 진짜 벗이 다른긴 달랐소까!」 등이다.¹⁵⁾ 이 자료들은 중국 간도를 배경으로 전승되고 있으나, 실제로 국내에서 활동하였던 사건들의 전이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친일주구들을 처단한 사건을 보면, 1896년 덕원에서 진성준을, 1907년 11월에 인평면장인 주도익을, 12월에 삼수부사와 주사를, 1908년 1월 원길학을, 단천군의 최성학을, 5월에는 귀순을 권유하러 온 김원홍을 처단하고, 그리고 6월에 함흥에서 악덕 부호 박 면장, 7월에 흥원군수에게서 군자금을 압수하였다.¹⁶⁾ 이런 상황들이 중국의 간도에서 행한 사건으로 전이되어 전승되었다고 하겠다.

한편 일본군과의 대결상황을 보여주는 것들은 중국 현지에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많은 사건들은 북한지역에서의 상황이 간도지역의 사건으로 전이되었다. 즉 일본군의 무고기를 탈취한 사건인 「우린 홍범도 장군의 독립군 전사다!」, 「렬세한 무기로 왜놈들을 격멸」 등이 있다.¹⁷⁾ 홍범도는 산포수 출신이기 때문에

15) 첫째는 p.80, 둘째는 p.131, 셋째는 p.140, 넷째는 p.136, 다섯째는 p.33, 여섯째는 63, 일곱째는 p.83, 여덟째는 p.107.

16) 장세운, 「홍범도 일지」를 통해 본 홍범도의 생애와 항일무장투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 1991.

화승총을 사용하였고, 일제와 싸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총과 탄약의 보급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군자금이 넉넉하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모금방법도 마땅치 않자, 일본군과 싸워 그 전리품으로 물자를 보충하여 싸움을 진행하였다. 1907년 후치령 싸움에서 총을 압수해 가는 포수들의 총을 회수하고, 일본군의 무기 노획, 우편마차의 호위병 사살, 일본 군경합동병력을 사살하고, 삼수성에서 많은 소총과 탄약을 노획하였으며, 12월에는 탄환 40상자와 무기를 노획하여 일본군과의 싸움을 계속해 왔다.

그 밖의 자료로는 「차도선 마을」, 「노루잡이에 깃든 이야기」, 「청년을 구해준 의병들」, 「노루골 이야기」, 「산양의 피를 얻어준다」 등이 있다.¹⁷⁾ 「차도선 마을」 이야기는 1907년 11월 홍범도와 함께 의병대를 구성하여 항일투쟁이 나섰다가 1908년 3월 일제의 귀순공작에 속아 200명을 부하를 데리고 북청 일본군 수비대 귀순하였던 인물이다. 나중에 탈출하여 1919년까지 만주지역에서 의병활동을 계속하였는데, 두지동의 유래부분은 간도 현지의 내용이고, 나머지는 조선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노루잡이에 깃든 이야기」, 「청년을 구해준 의병들」, 「산양의 피를 얻어준다」, 「노루골 이야기」 등은 간도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지만, 홍범도 의병대의 특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국내의 사건이 중국 간도의 사건으로 전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홍범도나 그의 의병대가 산포수 출신이란 점에서 사냥의 기술이나 방법, 그리고 포획물의 특성도 잘 드러난다. 어찌면 의병대를 구성하기 이전부터 있던 사건들이 의병대의 활동과 더불어 전이되어 중국 간도의 사건으로 전승되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 이외도 구성의 일부분은 국내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전반부나 후반부의 지명유래 부분만 현지와 관련된 자료들도 보인다.

이상에서 국내의 사건의 전이적 수용에서는 국내외의 역사적 사건을 전이적으로 수용하여 서사담을 전승시키고 있다. 전승 내용이 간도지역의 지명이나

17) 첫째는 p.65, 둘째는 p.82.

18) 첫째는 p.129, 둘째는 p.92, 셋째는 p.109, 넷째는 p.113.

공간을 배경으로 하였으나, 역사적이나 사실적인 시공간으로 보았을 때 홍범도가 북한지역에서 의병활동을 하던 시절에 있었던 사건들로 보이며,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제약에 따라 간도지역의 홍범도 서사담으로 전이되어 전승하고 있다.

3) 간도지역의 자생적 내용 생성

이 방식은 홍범도가 활동하였던 지역에서 그 행적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전승되는 자료들이다. 이들 자료는 간도의 지역적 특징과 조선족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특징은 앞의 민속적 수용과 변용, 국내사건이 전이된 자료에서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전승방식의 자료들은 앞의 2가지 유형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들이라 하겠다.

홍범도의 의병활동은 북한 지방이 중심이지만, 1920년 봉오동 전투에서 청산리 전투, 그리고 만주의 밀산을 거쳐 러시아의 자유시로 이동하는 동안 간도에서 이루어졌다. 사실 국내 진입을 위하여 최진동이 거주하였던 봉오동 인근에서 전투를 준비하면서 6개월 정도 머물러 있었다. 그런 관계로 앞에서 살펴본 홍범도와 관련된 일화들이 간도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것도 있다.

자생적으로 생긴 일화로는 지명유래담을 들 수 있다. 많은 홍범도 서사담은 지명유래로 시작한다. 「홍범도골」, 「개미산툰」, 「움집 하나뿐인 장씨마을」, 「홍범도 엽전골」, 「병어리툰 이야기(2)」, 「목 잘린 산」, 「신선샘」, 「은혜샘」 등이다.¹⁹⁾ 이들은 간도지역 소지명의 유래담으로, 그 지명들은 홍범도와 관련되어 생겨났다. 「홍범도골」은 봉오동 전투 후에 의병대가 휴식을 취한 곳이라서, 「개미산툰」은 홍범도가 마을 사람들에게 개미를 강장제로 알려주어 건강한 마을로 만들어져 붙여졌다. 「움집 하나뿐인 장씨마을」은 부상당한 홍범도의 의병대 병사를 고쳐준 장 노인을 기억하기 위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홍범도

19) 첫째는 p.25, 둘째는 p.27, 셋째는 p.29, 넷째는 p.30, 다섯째는 p.38, 여섯째는 58, 일곱째는 p.77, 여덟째는 p.122.

엽전골」은 홍범도의 의병대가 진군하다가 허기를 채우기 위해 밭에서 따간 호박 값을 물어준 것에서, 「병어리툰 이야기(2)」는 홍범도가 말 못하는 병어리를 부려먹은 주인을 혼내준 곳이라는 의미에서, 「목 잘린 산」은 홍범도 의병대를 지원한다고 나타난 일본의 끈나풀을 처단하였던 장소이고, 「신선샘」은 낙망하여 동상을 걸려 죽을 사람에게 홍범도가 샘을 알려주어 살게 하였다는 데서, 「은혜샘」은 홍범도가 불결한 샘을 수리하게 하였다는 데서 불여진 이름들이다. 이런 이름들은 현지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로 보인다.

한편 이곳의 역사와 관련되어 만들어진 이야기들도 있다. 「어허 아이고고!」, 「오만상을 찌푸리며, 이것이 호박이야!」, 「이건 비적 놈들의 시체란 말이야」 등이다.²⁰⁾ 뒤의 두 자료는 청산리 전투 이후의 상황을 제시한 것이고, 첫째 자료는 간도지역을 침탈한 일제의 만행을 드러낸 자료이다. 홍범도 의병대가 청산리 전투에서 얼마나 많은 일본군을 사살하였으면, 시신을 처리하는 일본군들이 머리만 끊어서 묻거나 수레에 일본군 시신을 실어 날랐다고 한다. 일본군인들은 시신을 가리켜 ‘비적 놈들의 시체’라고 하였다. 일본군은 이 말을 통하여 스스로 비적과 같은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비적과 같은 놈들이 이곳 자연을 훼손하며 목재를 반출하는 것을 막았던 의로운 병사들이 홍범도 의병대란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이처럼 이곳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자료를 전승된 자료들이 있다.

다음은 상황과 관련되어 동물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였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간도지역의 현지 상황에 따른 전승으로 보인다. 이에 속하는 것으로 「새들은 왜서 늘 울음소리를 낼까」, 「 짹 짹 오른쪽 길로」, 「 꿩을 피여 내어 왜군 복병을 전멸」 등이다.²¹⁾ 첫째 자료는 새의 속성에 대한 것으로, 새가 우는 까닭을 5가지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뒤의 자료들은 동물(새나 꿩)의 도움으로 일본군

20) 첫째는 p.74, 둘째는 p.144, 셋째는 p.44.

21) 첫째는 p.56, 둘째는 p.59, 셋째는 p.61.

을 피하거나, 매복하여 있는 일본군을 완전하게 섬멸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다.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자료들도 현지 전승으로 보인다.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문헌자료를 옮겨온 「유고문과 경고문」이다.²²⁾ 의병대의 활동을 가장하여 백성들에게 군자금을 강요하거나 약탈하는 행위를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흥범도가 백성들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해결하였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즉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사 돈을 대어주었다는 「아, 흥 장군님!, 가난한 효자에게 이쁜 어머니께 드릴 수 있도록 돼지고기를 보냈다는 「어서 돼지고기를 갖다 주게」, 일본군의 박해를 받을 주민들을 생각하여, 병사들을 위로하기 위해 구입한 소를 못 잡게 하였다는 「위로의 소를 못 잡게 하다, 가난한 부인을 도와주자, 아들을 의병대로 보내려 하였던 부인을 위하여 1명만을 입대하게 하였다는 「감동하여 큰 아들을 독립군에 보내다」 등이다. 그리고 「정말, 백성을 위해 싸우는 어른이요」이란 자료는 간도의 현지조사를 통해 들었던 자료이다. 마을의 유부녀를 겁탈한 병사를 매질하였다는 것은 오래 동안 전투하느라고 잊었던 성적 욕구를 발산하는데 한계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의병대가 백성의 유부녀를 강간한 것은 의병대의 목적에 반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하였다. 반면에 「상사병 젊은이의 병을 똑 떼주다」에서는 여자를 술병으로 비유하여 상사병이 그릇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²³⁾

일본군에 대한 적대의식을 드러내는 자료들도 현지 전승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여동생을 겁탈하려는 일본군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처단하고 의병대에 가입하였다는 「놈들에게 벌벌 꿇는 물벼락을 안기고」, 일본군에게 겁탈당하고 자살한 아내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의병대에 들어왔다는 「의병을 따라 원수 갚다」 등이 있다.²⁴⁾ 이런 자료들은 의병대에 들어온 이유가 현지에서의 일본군의 수탈에 대한 저항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들이다.

이상에서 자생적 내용의 생생 전승에서는 지명유래, 이곳의 역사와 관련된

22) p.147.

23) 첫째는 p.118, 둘째는 p.124, 셋째는 p.37, 넷째는 p.36, 다섯째는 p.21, 여섯째는 104.

24) 첫째는 p.50, 둘째는 p.98.

자료, 상황과 관련되어 동물의 도움을 받는 자료,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자료, 일본군에 대한 적대의식이 드러나는 자료 등이 간도지역의 현지에서 생겨난 전승들로 보인다.

3. 서사담에 구현된 홍범도의 능력

홍범도 서사담에는 그의 여러 능력이 드러나고 있다. 이야기의 주체에 따라 홍범도가 직접 활동한 사건과 그의 부하들이 활동한 사건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에 홍범도가 직접 활동한 사건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²⁵⁾ 그랬을 때 서사담에 구현된 홍범도 능력의 양상은 세심한 관찰 능력, 탁월한 용병술, 애민정신으로 나눌 수 있다.

1) 세심한 관찰 능력

홍범도의 능력은 천부적인 것과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있다. 천부적인 것이든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든 그의 능력이 세심한 관찰하기를 통해 드러나는 자료들이 있다.

홍범도는 중앙아시아의 현지조사와 역사적 사실에서 무식한 인물로 등장한다. 그런데 간도지역의 전승 자료에서 그는 천부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인물이다. 「벌에 쏘인 로인의 병을 치료한 이야기」, 「개미산탄」, 「목침 두 개로 오금 들어붙은 병을 치료」 등에서는 홍범도가 탁월한 의술을 가진 인물로 나타나고 있다.²⁶⁾ 천부적인 능력을 드러내는 방식은 세심한 관찰을 통해 이루어

25) 69편에서 4편을 제외하면 65편인데, 세심한 관찰을 통해 능력을 드러낸 작품이 13편, 탁월한 용병술을 드러내 작품이 20편으로 가장 많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낸 작품이 18편, 그리고 병사들이 행한 작품이 14편으로 구성되었다.

26) 첫째는 p.52, 둘째는 p.27, 셋째는 p.54.

고 있다. 첫 번째 작품에서 홍범도의 의술 능력은 중국의 전설적인 의사인 화타에 비유되고 있을 만큼 천부적이다. 그 밖의 자료에서도 능력 드러내기 방식은 주변과 사람, 자연 환경 등을 세심하게 관찰하여 파악한 뒤에 결론을 내리는 방식으로 드러난다.

홍범도의 능력은 동물을 통해서도 드러내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는 전투를 끝내고 퇴각하는 과정에서 새를 통해 일본군의 잠복한 사실을 알아낸다. 「쩍쩍 오른쪽 길로」는 새의 울음소리를 알아듣고, 일본군들이 잠복한 숲속 길을 버리고 대로로 퇴각하여 안전하게 벗어났다는 내용이다. 「땡을 피어 내어 왜군 복병을 전멸」에서는 땡의 울음소리를 세밀하게 관찰한 뒤, 일본 군인들이 땡 잡을 욕심을 내게 하여 그들의 위치를 명확하게 알아내고 섬멸하였다는 내용이다.²⁷⁾

다음은 사람들의 행위를 명확하게 관찰하여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를 처단한 이야기이다. 이는 「일본의 독살음모를 분쇄」와 「왜놈 밀정을 처단」이 있다.²⁸⁾ 전자는 길가에 새로 생긴 주막집에서 술을 먹으면서 생긴 일화이고, 후자는 정찰을 나갔다가 일어난 일화이다. 홍범도 일행이 주막집에서 술을 시켜 먹고 있는데, 그 주막집의 젊은 여자가 아양을 떨며 이것저것을 캐묻는 것, 술을 2병을 내오는 것 등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것도, 홍범도는 그 여자의 행동이 일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파악하고 대처한다. 그 여자의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하지 않았다면 마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뒤의 이야기도 사람들을 세심하게 관찰하여 위기에서 벗어난 이야기이다.

한편 자연현상이나 지리적 위치를 세심하게 관찰하는 능력이 드러나는 「벼농사를 잘 짓게 도와주다」와 「신선샘」이 있다.²⁹⁾ 이 자료들은 홍범도가 타향살이 하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유형에 속한다. 특히 타지에 나와 고생하는 백성들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벼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맛있는 물을 먹도록

27) 첫째는 p.59, 둘째는 p.61.

28) 첫째는 p.63, 둘째는 p.80.

29) 첫째는 p.93, 둘째는 p.77.

샘을 찾아준다. 이것은 자연현상이나 지리적인 특징을 세심하게 관찰한 능력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세심한 관찰 능력을 드러낸 자료로는 당시대의 국제적 정서를 알려주는 「백성들에게 형세 강의를」이 있다. 이 자료는 1920년 청산리 전투 이후에 북만주를 거쳐 러시아 자유시 참변을 겪고 러시아의 적군에 포함되어 이루츠크로 갔다가 나중에 블라디보스토크에 거주하면서 있었던 일을 이곳 간도지역과 결부시켜 전승된 이야기이다. 그리고 「시아버지와 며느리간의 애매한 사건을 해명」에서는 어사 박문수의 「목화동냥」이란 민담의 내용을 차용하여 홍범도가 어사 박문수를 능가하는 능력의 인물임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을 거꾸로 신겨 왜놈들을 미혹시키다」는 추격해 오는 일본군을 따돌렸다는 홍범도의 재치를 말하고 있다. 이 자료는 현재 중앙아시아에 전승되고 있는 「신발을 거꾸로 신고 도망친 홍범도」란 자료의 초기 유형으로 보인다. 이 작품은 처음에는 세심한 관찰하기를 통해 능력을 드러냈는데, 설화화 되면서 홍범도가 능력이 있는 민중적 영웅임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기를 추진하여 내려온 전승이라고 하겠다.³⁰⁾

이상에서 홍범도는 문헌이나 역사적 사실에 나타난 무식하다는 것과 달리 민중에게는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유형에서는 그 탁월한 능력이 천부적인 것도 있지만, 세심한 관찰하기를 통해 그의 출중하고 다양한 능력을 드러내고 있다.

2) 탁월한 용병술

탁월한 용병술의 유형은 홍범도가 전투 과정이나 그 결과에 따라 탁월한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홍범도가 일본군에 대한 군사적 대응 양상을 통해 능력을 드러낸 작품들이 이에 속한다.

30) 첫째는 p.142, 둘째는 p.85, 셋째는 p.95.

홍범도의 탁월한 용병술을 통해 능력을 보여준 것으로 「이것은 비적 놈들의 시체란 말이야, 「오만상을 찌푸리며, 이것이 호박이야」가 있다.³¹⁾ 이들 자료에서 탁월한 용병술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지 않았지만, 이곳의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는 민중들이 청산리 전투의 결과를 담아낸다. 일본군들은 자신들의 동료이었던 일본군 시체들을 ‘비적 놈들의 시체’ 또는 ‘호박’이라 한다. 전투에서 얼마나 많은 일본군들이 죽었으면 들것으로 들고 가지 못하고, 수레에 시체를 싣고 깊은 산속에 가서 태웠겠는가. 심지어 시체의 양이 많아 수레에도 싣고 가지 못하고 시신의 머리만 끊어 싣고 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능력은 홍범도의 탁월한 용병술에서 비롯된다.³²⁾

탁월한 용병술의 결과는 대등한 입장에서 싸워 얻은 것이 아니라 열세한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높이 평가되고 있다. 「열세한 무기로 왜놈들을 격멸」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³³⁾ 실제 전투에서 열세한 무기와 군사력으로 적과 대등하게 싸우기 위한 방법은 정공법보다 게릴라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홍범도 부대는 지리 지형을 잘 이용하여 치고 빠지는 전형적인 게릴라 전법을 수행하기 때문에 잘 도망가는 방법도 필요하다. 중앙아시아 고려인들 사이에 전승하는 설화에는 이런 도망가는 방법만 나타나는데³⁴⁾, 이곳 조선족에 전승하는 홍범도 설화에는 도망가는 방법보다 일본군과의 싸움에서 탁월한 용병술을 더 중시하고 있다.

탁월한 용병술에는 밀정들을 처단한 이야기들도 있다. 「목 잘린 산, 「왜놈 밀정을 처단, 「기묘한 술수로 두 악질주구를 처단, 「되돌려 온 황소」이다.³⁵⁾ 역사적 사실로 보았을 때, 이들 이야기는 한반도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간도지역

31) 첫째는 p.44, 둘째는 p.144.

32) 홍범도는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게릴라전을 벌려 거의 패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33) p.82.

34) 강현모, 앞의 논문, pp.120-123.

35) 첫째는 p.58, 둘째는 p.80, 셋째는 p.140, 넷째는 p.133.

의 사건으로 전이된 것으로 보인다. 즉 간도지역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밀정 사건이지만, 시간 요인과 처벌된 자의 이름으로 보았을 때 국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간주된다. 이들이 간도에서 일어난 탁월한 용병술 사건으로 전승하는 것은 홍범도 부대의 활동이 훌륭하였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이 자료들은 홍범도 의병대에서 활동하였거나 연관된 사람들에 의해 전승한 것으로 보인다.³⁶⁾

탁월한 용병술에서 일본군들을 처단하거나 속인 이야기도 있다. 「하산요토 율이라 불가지상이로다」, 「방구 소리에 놀라 내뛰다가 뒤어진 토벌대놈들」, 「부임 족족 병신이 된 령사 놈들」, 「악한 만행 저질렀다 상관에게 총살당하다」, 「홍범도 장군이 왔다!」, 「괜히 서둘다간 큰코 다치겠어」, 「웃시 우리 황군의 진짜 벗이 다른진 달랐소까!」이다.³⁷⁾ 홍범도 의병대나 홍범도가 앞 자료들에서는 신령스러운 기운으로 일본인들을 처단하고, 뒤 자료들에서는 일본의 앞잡이 들인 친일주구, 밀정, 자경단들을 역이용하는 재치와 능력으로 일본군을 무찌르게 된다. 그래서 일본 군인들은 홍범도 부대가 얼마나 무서우면 방구소리를 총소리로 인식하여 총도 놓고 도망하다가 죽음을 당하거나, ‘왔다’는 소리에 밤새도록 똥오줌을 지리었다고 한다.

또 탁월한 용병술에서는 전통적인 설화의 전승방식을 차용하여 홍범도의 용맹성을 드러내고 있다. 「노래하는 바위」는 항우와 유방의 싸움의 이야기를 차용하여 홍범도 부대의 용맹성으로 일본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약수샘 이야기」는 가뭄으로 죽어가는 물고기를 살려주어, 그 보은으로 여인으로 변한 물고기의 제보로 샘물을 얻어 앓고 있는 부하 대원들을 낫게 하였다.³⁸⁾ 이처럼

36) 그들의 출신 지역은 제보자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있지 않아 알 수 없으나,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면 함경도 일대의 출신들로 추측할 수 있다.

37) 첫째는 p.90, 둘째는 p.34, 셋째는 p.69, 넷째는 p.46, 다섯째는 p.131, 여섯째는 136, 일곱째는 107. 이밖에 일본군을 처단한 자료로 홍범도의 의병에 가입한 청년의 일화인 「놈들에게 벌벌 끓는 물벼락을 안기고」(p.50), 점령지인 간도에서 나무를 토벌하려다가 곡소리도 못하고 죽은 일본병사들에 관한 「어허 아이고고!」(p.74) 등이 있다.

38) 첫째는 p.119, 둘째는 p.75.

홍범도의 능력은 미물조차 사랑하였기 때문에 얻은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홍범도의 능력은 「석탄령에서 원수를 갚아준다」, 「더덜기산과 번개령」, 「마당때 인삼을 얻은 이야기」로³⁹⁾ 이어지면서, 탁월한 용병술보다 백성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를 해결해 주려는 애민정신을 통해 능력 드러내기로 변이되고 있다. 이 자료에서는 탁월한 용병술을 통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민중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다. 이는 홍범도가 애민정신을 가졌기 때문이다.

홍범도의 탁월한 능력은 그의 전투나 싸움이 바탕이 되겠지만, 그 원천은 백성 등 약한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치밀한 계산에서 비롯된다. 그리하여 홍범도는 약한 것들의 도움을 받고, 일본군의 앞잡이를 역이용하여 그의 탁월한 능력이 배가 된 것이다.

3) 애민정신

지도자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은 영웅적 인물의 특징이라 하겠다. 힘없는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할 때, 그 백성들은 진정으로 그를 따르고 그를 위하여 행동하게 된다. 홍범도의 서사담에서도 이런 내용을 강조한 유형의 설화들이 보이고 있다.

먼저 홍범도는 백성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극히 꺼려하였다. 자료로는 「홍범도의 엽전골」, 「홍범도골」, 「위로의 소를 못 잡게 하다」 등이 있다.⁴⁰⁾ 「홍범도 엽전골」에서는 부대가 이동하면서 끼니를 때우지 못하였다. 이런 굶주린 군사들을 위해 지나가는 길가에 있던 호박밭에서 호박 몇 덩이를 따 먹어서 그 값을 나무에 매달아 놓고 갔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홍범도골」에서는 봉오동 전투 이후 부대가 이동하던 중 휴식을 취하면서도, 백성들이 일본군에게

39) 첫째는 p.83, 둘째는 p.87, 셋째는 p.79.

40) 첫째는 p.30, 둘째는 p.25, 셋째는 p.37.

책이 잡히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하였다. 또 「위로의 소를 못 잡게 하다」에서는 홍범도 의병대가 마을을 떠날 때, 마을에서 소를 사다가 잡아서 병사들을 위로하려고 하였는데, 일본군에게 책을 잡히지 않게 소를 못 잡게 하였다. 이처럼 홍범도는 전쟁을 하면서도 백성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한 민중을 위한 영웅이라고 하겠다.

둘째로 홍범도는 어려운 환경에서 의병생활 하면서도 백성들의 애환을 청취하고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였다. 자료로는 「노루잡이에 깃든 이야기」, 「병어리툰 이야기(1)」, 「병어리툰 이야기(2)」, 「아, 홍 장군님!」, 「은혜샘」 등이 있다.⁴¹⁾ 이들 설화에서는 홍범도가 백성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을 도와주고 해결해 주고 있다. 「노루잡이에 깃든 이야기」에서는 어렵게 노루를 잡아 생활하는 사냥꾼에게 사냥을 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병어리툰 이야기」에서는 20년간 머슴살이하고도 노역 값을 받지 못한 병어리의 억울한 사정을 청취하고 그 노역 값을 받아준다. 「아, 홍 장군님!」은 가난하여 제사를 지낼 수 없는 백성에게 돈을 대주었고, 「은혜샘」은 백성들이 먹는 샘이 불결한 것을 보고 샘을 수리하여 준 이야기이다. 이처럼 민족의 영웅이었던 홍범도는 일본군과의 싸움만 중시한 것이 아니라, 싸우는 목적이 백성들이 편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구현하는데 있음을 잊지 않았던 것이다.

셋째로 홍범도는 전쟁을 하면서도 백성들의 인륜지도의 문제를 중시한 인물이었다. 인륜지도는 인간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이것이 지켜지는 사회는 밝은 미래가 존재하게 된다. 위의 「아, 홍 장군님!」에서 가난해서 제사를 못 지내 사람에게 제사비용을 제공하였다는 것은 조상을 위한 인륜도의 문제이다. 이처럼 인륜의 문제를 언급한 자료로는 「불효자 저놈을 매우 쳐라」, 「어서 돼지고기를 갖다 주게」, 「정말, 백성을 위해 싸우는 어른이요」, 「대지주 리완장을 흔뜨검 내다」 등이 있다.⁴²⁾ 「불효자 저놈을 매우 쳐라」에서

41) 첫째는 p.32, 둘째는 p.38, 셋째는 p.38, 넷째는 p.118, 다섯째는 p.121.

홍범도는 결혼하기 위하여 어머니까지 버리는 불효자를 처결하였다. 반면에 「어서 돼지고기를 갖다 주게」에서는 어머니에게 돼지고기를 갖다 드리게 만들어 효를 다하게 하였다. 한편 「정말, 백성을 위해 싸우는 어른이요」에서는 일본군과 싸우고 있는 중에 백성의 아내를 겁탈한 강간범인 한 병사를 처벌하여, 군율을 지키는 백성을 위한 군대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대지주 리완장을 혼뜨끔 내다」에서는 대지주인 리완장이 자신의 땅에 부모를 묻은 조선 백성에게 횡포를 부리자, 이를 못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조상숭배의식을 엿볼 수 있다. 홍범도는 조선 백성이라면 어떤 어려움에서도 조상을 위하고 부모를 위할 수 있는 인륜지도를 지켜야 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홍범도는 백성들에게 조선민족의 경로애친사상이란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애민정신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밖에 「호랑이로 인해 새 부부가 되다」, 「하늘도 구국군을 도와」, 「감동하여 큰 아들을 독립군에 보내다」, 「의병을 따라 원수 갚다」, 「노루골 이야기」 등에서도 홍범도가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애민정신을 소유자임을 드러내고 있다.⁴³⁾

애민정신을 들어낸 자료들을 보면, 홍범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였다. 또 백성들의 애환을 청취하여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였으며, 조선민족의 경로애친사상이 들어있는 인륜지도를 중시하여 백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의 능력을 드러냄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본 연구는 간도지역에 전승되고 있는 홍범도 서사담의 전승 방식과 양상을 밝히고자 하였다. 중앙아시아 고려인에게 널리 알려진 민족영웅인 홍범도의

42) 첫째는 p.100, 둘째는 p.124, 셋째는 p.21, 넷째는 p.137.

43) 첫째는 p.126, 둘째는 p.72, 셋째는 p.36, 넷째는 p.98.

서사담이 간도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이 전승하고 있는지에 관한 고찰이다. 원래 이 연구는 간도와 연해주 지역을 현지 조사하여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간도지역에서 홍범도가 보여준 활동기의 탁월한 능력을 중심으로 수집된 기존의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간도지역에 전승되는 홍범도 서사담의 전승 방식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민속적 내용의 수용과 변용으로, 전통적인 민담이나 민속들의 내용을 홍범도 서사담에 수용하고 변용하여 전승시키고 있다. 둘째, 국내외 사건의 전이적 수용으로, 국내외의 역사적 사건을 전이적으로 수용하여 서사담을 전승시키고 있다. 전승 내용이 간도지역의 지명이나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역사적이나 사실적인 시공간으로 보았을 때 홍범도가 북한지역에서 의병활동을 하던 시절에 있었던 사건들로 보인다. 이들 사건들이 간도지역의 홍범도 서사담으로 전이되어 전승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자생적 내용의 생성 전승으로, 지명유래 등 간도지역의 현지에서 생겨난 전승들이 있다.

간도지역에 전승되는 서사담에 구현된 홍범도 능력의 양상은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 병사들을 통해 구현된 방식의 자료들은 홍범도가 직접 활동한 능력 드러내기 양상의 유형과 중복되어 3가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홍범도는 세심한 관찰 능력이 있다. 중앙아시아의 현지조사나 역사적 사실로 보았을 때 무식하였던 홍범도는 간도에서 천부적인 탁월한 의술과 능력을 가진 소유자로 나타나고, 또 동물과 인간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가진 인물이다. 그런 능력은 세심한 관찰하기에서 비롯된다. 둘째, 탁월한 용병술에서는 홍범도나 그의 의병대가 일본군에게 탁월한 용병술을 통해 능력을 드러낸다. 홍범도와 그의 의병대는 역사적으로 청산리 전투에서 탁월한 능력을 드러내 많은 일본군을 사살하였다. 또 지엽적이거나 개별적인 싸움을 통해 일본군이나 일본의 앞잡이들을 처단하였다. 이런 홍범도의 능력은 전투 지휘 능력이 바탕이 되겠지만, 약한 것에 대한 사랑과 치밀한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다. 셋째, 애민정신을 통해서도 능력이 드러나고 있다. 홍범도는 전투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 그들의 애환을

청취하여 해결해 주었다. 그리고 백성들의 고통을 함께 하며 전통적인 경로애친 사상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홍범도가 백성들을 사랑하고 도움을 주자, 백성들은 홍범도를 따르고 탁월한 용병술의 원천을 제공한다. 이런 것들이 홍범도의 능력을 민족적 영웅으로 배가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간도지역의 조선인 사이에 전승되는 홍범도 서사담을 분석하여 전승 방식과 능력 드러내기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간도지역의 홍범도의 서사담은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이에 전하는 홍범도 서사담과 차이가 있다. 이들 서사담의 차이를 나타내는 서사구조나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이곳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전통적인 영웅 서사담과 현대적 영웅서사담의 구조를 모색하고 규명할 필요가 있음을 차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 주제어 : 홍범도, 간도, 전승방식, 능력 드러내기, 양상, 서사담

<참고문헌>

- 리룡득, 『민족영웅의 설화와 민요』, 역락, 2016.5.
- 강현모, 「간도지역의 현지조사 홍범도 설화 (미간행)」, 2015.8.
- 강현모, 「중앙아시아(우즈벡, 카작 등) 현지조사 자료(미간행)」, 2009-2014.
- 김근태 외 3인, 『증보한국구비문학대계』, (우즈베키스탄:2015, 카자흐스탄:2016)
(미간행)
- 김세일, 『장편소설 홍범도(1-3권)』, 신문학사, 1989.6.
- 김세일, 『역사기록소설 홍범도(5편)』, 제3문학사, 1989.11-1990.11.
- 강용권, 김택, 『홍범도 장군』, 장산출판사, 1996.
- 홍범도, 「자필이력서와 자서전」, 『레닌기치』, 1989년 4월 11일.
- 강진구, 「구소련권 고려인 문학에 나타난 역사복원욕망 연구-김세일의 장편소설 『홍범도』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25권, 민족문학사학회, 2004, 302-329면.
- 강현모,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홍범도 서사담 연구」, 『민속연구』 36,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18.2, 103-131면.
- 김근태·강현모,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이주와 삶』, 굴누림, 2015.
- 김삼웅, 「빨치산 대장 홍범도 평전」, 현암사, 2013.
- 박영석, 「홍범도장군연구」, 『재만 한인 독립운동사 연구』, 일조각, 1988.
- 반병률, 「홍범도 일기 판본 검토와 쟁점」,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2008, 429-453면.
- 송우혜(1), 「최근의 홍범도 연구, 오류, 허점 많다」, 『역사비평』 3, 역사비평사, 1988년 겨울호, 199-217면.
- 윤정현, 「역사기록소설 『홍범도』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8,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1, 103-120면.
- 장세운, 「홍범도 일지를 통해 본 홍범도의 생애와 항일무장투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1, 233-272면.

[Abstract]

A Study on the narrative Story of Hong Bum-do in Kando Area

Kang, Hyen-m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rify the transmission method and aspect of the narrative story of Hong Beom-do in Gando Area. However, due to difficulties in collecting data from fieldwork, the existing data that had been transferred to the Gando area were investigated.

There are three main ways in which Hong Beom-do's narrative Story in the Gando area. The first is the way of accepting and transforming the contents traditional folklore and folktales, the second is the method of accepting historic events and facts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nd the third is the way of inheriting the contents that originated locally.

Gando area, reviewed three different aspects of capability display in Hong Beom-do's narrative story. First, careful observation, Hong Beom-do, unlike of the historical facts and fieldwork data in Central Asia, has excellen natural medicine and accurately grasped the specificity of animals and humans. Such ability comes from careful observation. Secondly, it is to demonstrate military force. Hong Bum-do and its militia's capabilities show the military's ability to dispose of the Japanese soldiers or Japanese informants in the battle of Cheongsan-ri or in a peripheral and individual fight. This resulted from Hong Beom-do's ability to direct combat, love for the weak, and careful calculations. Third, love the people. During the battle, Hong Beom-do was considerate to share pain with the people and not cause damage, listened to their woes and resolved them,

and emphasized traditional love ideas. Hong Beom-do helped the people, and the people provided with a source to follow themselves and help the militia. These became the backdrop for Hong Beom-do's ability to double as a national hero.

The narrative story of Hong Beom-do differs in the Gando area and central Asian Korea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mpare the structure and content of these narrative stories to identify their characteristics, and to find and identify the structure of modern hero-story different from traditionally hero-story.

【Key words】 : Hong Beom-do, Gando, transmission method, a winning style, aspect, narrative story

강현모

한남대학교 탈메이지교양교육대학 국어국문학전공 강사

(34430)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한남대학교 탈메이지교양교육대학 국어국문전공

전자우편: kanghyenmo@hanmail.net

이 논문은 2018년 11월 19일에 투고되었으며, 2018년 11월 30일에 심사 완료되어 12월 6일에 게재 확정되었음.